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5월 뉴스레터 목차

1. 돌아온 대동제, 학생회에서 운영한 부스가 궁금해요!

- Q1. 학생회에서 운영한 부스/주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 Q2. 축제 부스/주점을 준비하고 직접 운영해본 소감은?

2. 예비 소프트웨어 학생들의 두근두근 전공체험

- 우리 예비 소프트웨어 새내기들이 무엇을 배우고 얻어갔을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3. 친목 기다리다 지쳤어용 땡벌!

- 글로벌융합학부 선후배 친목프로그램 <땡벌 프로젝트> 리뷰

4. 성균 SW멘토링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시작!

- Q1.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 Q2.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Q3.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 임하는 자세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돌아온 대동제, 학생회에서 운영한 부스가 궁금해요!

5월 초 2주간에 걸친 성균관대학교 대동제 ESKARA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무려 3년만에 재개된 대학 축제인만큼 모두들 많은 기대를 하셨을텐데요, 자연과학캠퍼스에서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와 소프트웨어학과 알리미가, 인문사회과학캠퍼스에서는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가 주간부스&야간주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융합대학과 글로벌융합학부의 두 학생회장님들께 물어보았습니다!

Q1. 학생회에서 운영한 부스/주점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기택 :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은 학생회와 중점학과 알리미가 같이 부스 운영을 진행하였는데, 저희 부스는 대표적으로 소개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인원을 받아, 저희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매칭을 시켜주고 주선을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한 밸런스 게임과 MBTI 맞추기 등을 진행하여 밝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인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번외 붙이기, 추억의 뽑기 게임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은 닥트 던지기를 통해 교수님의 식사권을 가져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장 김수민 :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에서는 5월 12일 목요일에 인사캠에서 사우나 컨셉으로 주점과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우선 12시부터 5시까지 '글용사우나 부스'를 운영했는데, 펀치기계 체험과 계란 꾸미기 체험, 크로플 꾸미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오뚜기와 프롬하츠에서 지원을 받아 쿡쿡쿡 컵라면과 커피, 식혜 등의 음식 역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6시부터 11시까지 '글용사우나 주점'을 이어서 운영했습니다. 주점에서는 각종 주류와 닭갈비를 제공하였고 부스 때 운영한 펀치기계 체험도 계속 진행했으며, 인스타 스토리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Q2. 축제 부스/주점을 준비하고 직접 운영해본 소감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생회장 이기택 :

처음 하는 부스 운영이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3년 만에 축제가 다시 진행되었기에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부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부스 운영 당일에는 축제를 즐기기위한 많은 인원이 부스에 방문하고 웃는 모습으로 떠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힘듦은 모두 가셨습니다. 문제없이 부스를 마무리 짓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남길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노력해준 우리 학생회와 알리미 친구들에게 고마움이 크며, 다음 축제에도 같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여 또 다른 즐거움을 남기고 싶습니다.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장 김수민 :

부스와 주점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처음 경험하는 대학 축제였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회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고 총학생회 측의 도움도 많이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 주점 때 대기 인원이 대략 150명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2학기에 있을 건학기념제에서는 더욱 재밌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예비 소프트웨어 학생들의 두근두근 전공체험

봄 내음이 가시고 더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5월,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체험에 선발된 고등학생들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캠퍼스를 찾아왔습니다. 중점학과 홍보대사 소프트웨어학과 알리미 주관으로 진행되는 전공체험은 무려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예비 소프트웨어 새내기들이 무엇을 배우고 얻어갔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5/14 전공체험

🔒 고등학생들에게 공개 소프트웨어학과 알리미 11&12기



조별 캠퍼스 투어

1.8분 57 좋아요 2 공유 1 오프라인 저장 24 저장 ...

자연과학캠퍼스에 왔으면 '디도'는 가봐야겠지요? 각 조의 담당 알리미와 함께 **캠퍼스 투어를 떠나봤습니다.** 여기저기 정신 없이 둘러보는 고등학생 친구들의 설렘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개회사를 위해 방문해주신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은석 학과장님께서 "어디가 제일 멋있었어요?"라고 묻자, 우리 친구들은 "도서관이 최고였다"라고 답했습니다. 역시네요!



C/파이썬 전공체험

1.8분 57 좋아요 2 공유 1 오프라인 저장 24 저장 ...

소프트웨어학과 전공체험을 하면 이 정도는 배워봐야지! 사전에 신청받은 C, 파이썬 희망 여부에 따라 **반을 나누어 수업 및 코딩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C는 박민지 알리미, 파이썬은 채시현 알리미가 발표를 맡았는데요, 다른 알리미 친구들의 열성적인 코칭 덕분에 한 명의 고등학생도 빠짐 없이 실습을 마무리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학과소개 및 입시상담

1.8분 57 좋아요 2 공유 1 오프라인 저장 24 저장 ...

아마 고등학생 친구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 학과소개 및 입시상담 시간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소개**는 서진세, 박윤지 알리미가 맡았고, 그 후 **입시상담**은 12명의 알리미가 앞으로 나와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셨다고 하네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유용한 정보를 가득 얻어간 알찬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친목 기다리다 지쳤어용 땡벌!

글로벌융합학부 선후배 친목프로그램 <땡벌 프로젝트 >리뷰

지난 5월엔 무려 6일 동안 대동제가 열리며 성균인들이 하나될 수 있었는데요.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 cresc.는 분위기에 박차를 가하여 <땡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땡벌 프로젝트란, 글로벌융합학부 18~21학번이 어울려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땡벌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학번의 학우들 한 조가 되어 서로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공적인 친목의 비결은 학생회가 기획한 <글용문답> 덕분이라고 합니다. <글용문답>, 지금 보러가시죠!

마이썸 뽀치는 친목 비결, <글용문답>

<글용문답>은 학생회에서 준비한 문답 책인데요.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에 걸맞은 노란색 디자인과 귀여운 꿀벌이 눈에 들어오네요. 책 안에는 서로를 효과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응답형**에는 분위기를 풀 수 있는 가벼운 질문부터 자신의 취향을 공유하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한, 전공 생활에 대해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질문과 선배가 후배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정말 다채로운 질문이 들어 있네요! 사실 저도 <땡벌 프로젝트>에 21학번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 전공 새내기랍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채우니 3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덕분에 어색했던 분위기는 금세 사라지고 확실하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친해졌다면 다함께 놀러 가요!

<글용문답>에는 자원들이 같이 놀러 다닐 수 있도록 **참여형 질문**도 있었는데요. 많은 조가 구성원들끼리 혜화 맛집과 근처 명소를 추천한 뒤 찾아가 보고, 대동제 5일 차에 열린 '글용 사우나(글용 학생회 축제 부스 및 주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글용 사우나의 음식이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는데, 부스를 갔으면 맛집 방문이 저절로 해결됐겠네요. 또한, 그날의 추억을 필름 사진으로 담아가는 미션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 참가한 학우들이 두고두고 보면서 추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resc. 김선호 사무기획국장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선후배가 대면으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게 아쉬워서 땡벌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글용문답>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학우님들이 즐겁게 참여해주셔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찼어요! 땡벌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인연이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프로젝트도 기대해주세요!"





SW·AI 중심의 깊은 생각 SO 중 慧

매월, 함께 나누는 포털 뉴스레터

성균 SW멘토링 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시작!

고교 시절, 대학교에 입학한 선배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멘토링 수업을 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대학생 선배들이 찾아와서 멘토링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매년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학생들이 고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학생들이 고교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하여 고등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경험하고,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링 형식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고교 학생들의 진학 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 활동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7개월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온라인 멘토링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여 우수한 팀들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시 한 학교당 2~5명씩 배정되어 월 1회 3시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트랙별 교안을 바탕으로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멘토링을 실시하는데, 멘토링 트랙은 트랙1 - 모바일 앱 (앱 인벤터), 트랙2 - C 프로그래밍, 트랙3 - Python 프로그래밍, 트랙4 - 아두이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 임하는 자세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재학생들이 고교 학생들에게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대표하여 수업을 진행하기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SW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균 SW멘토링 프로그램은 매년 진행하고 있으니 멘토링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재학생분들은 내년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출처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지사항 <2022년 성균SW멘토링 프로그램 재학생 참가자 모집>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기자단 김다민 | ekals7110@g.skku.edu